



가정경제의지출구조가 4대 소비지출(주거·교통·문화·통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필수품 지출과 여가·문화·교육 지출로 크게 나뉘고 있다. 특히, 문화·교육 지출은 199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문화·교육 지출은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생활필수품 지출의 증가가 전체 지출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주거·교통·문화·통신 지출은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생활필수품 지출의 증가가 전체 지출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주거·교통·문화·통신 지출은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생활필수품 지출의 증가가 전체 지출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